U+프로야구
SK텔레콤, KT 고객도 U+프로야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ONE스토어/Play스토어에서 [U+프로야구] 다운로드 받으세요

'초보 선발' 한승혁 호투… 호랑이, 집 밖에서 웃었다

6.2이닝 1실점 … 최형우·안치홍·박준태 '축포'

KIA, NC에 12-1 대승 … 원정 첫 위닝 시리즈

'초보 선발' 한승혁이 KIA 타이거즈의 원정 첫 위닝 시리즈를 이끌었다.

KIA가 27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원정경기에서 12-1 승리를 거뒀다. 선발 한승혁이 6.2이닝 4피안타 2볼넷 3탈삼진 1실점의 호투로 승리의 주역이 됐다.

이날 경기 전까지 8승 16패(승률 0.333)로 원정 약세를 보여왔던 KIA는 깔끔한 승리로 원정길에서 첫 위닝 시리즈를 챙겼다.

지난 22일 kt와의 홈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끊었던 한승혁이 앞선 등판보다 더 위력적인 피칭으로 한 주의 시작과 끝을 승리로 장식했다.

1회 첫타자 이상호를 2루수 직선타로 돌려세운 한승혁이 노진혁의 방망이를 헛돌게 하면서 첫 탈삼진을 기록했다. 나성범을 1루수 땅볼로 막고 1회를 넘긴 한승혁은 2회에도 힘 있는 타자들을 삼자범퇴로 처리했다. 스크럭스를 3루수 땅볼로 잡아낸 뒤 박석민과 권희동은 각각 우익수 플라이와 좌익수 플라이로 처리했다.

한승혁이 쾌조의 스타트를 끊자 야수들이 공·수에서 승리 도우미로 나섰다. 특히 김주찬의 활약이 돋보였다.

2회초 선두타자 최형우가 살아나간 뒤 김주찬이 연속 안타로 분위기를 띄웠다. 이범호가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1사 1·3루에서 나지완의 중견수 플라이 때 3루에 있던 최형우가 홈에 들어왔다. 1루 주자 김주찬도 2루로 진루하면서 상대를 압박했다. 김주찬은 한승택의 좌전 적시타 때 득점을 올렸다.

김주찬은 3회초 공격에서는 멀티히트와 함께 타점까지 추가했다.

▲마산전적(27일)

KIA	022	010	223	12
N C	000	000	100	1

△ 승리투수 = 한승혁(3승 2패)
△ 패전투수 = 구창모(1승 5패)
△ 홈런 = 최형우 8호(5회1점) 안치홍 10호(7회1점) 박준태 1호(9회3점·이상 KIA)

이명기의 중전 안타로 만들어진 1사 1루에서 안치홍의 타구가 좌중간을 갈랐다. 1사 2·3루에서 최형우가 우전안타로 이명기를 홈으로 불러들였고, 이어 김주찬도 좌측으로 공을 보내면서 타점을 올렸다.

수비에서도 김주찬이 박수를 받았다.

1루수 김주찬은 3회말 선두타자 박헌욱의 날카로운 타구를 낚아채 투수 한승혁에게 송구하면서 원아웃을 만들었다. 한승혁은 손시헌에게 첫 안타를 내줬지만 2루수 플라이와 유격수 땅볼로 3회를 끝냈다.

주자를 내보낸 4·5회에는 야수진이 깔끔한 병살 플레이로 한승혁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볼넷과 몸에 맞는 볼로 맞은 4회 1사 1·2루 위기. 이범호가 박석민의 타구를 잡은 뒤 3루 베이스를 찍고, 1루로 송구해 이닝을 종료했다. 선두타자 권희동을 중전안타로 내보낸 5회에는 2루수 안치홍, 유격수 김선빈 그리고 1루수 김주찬으로 이어지는 4-6-3의 병살타가 기록됐다.

6회 다시 삼자범퇴를 만든 한승혁은 7-0으로 앞선 7회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포크볼로 나성범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한 한승혁은 스크럭스와 박석민과 7구 승부를 한 끝에 각각 좌전안타와 볼넷을 내줬다. 한승혁은 권희동을 바깥쪽 꽉 찬 152㎞ 강속구로 돌려세웠지만, 박헌욱에게 1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이날 등판을 마무리했다.

4일 휴식 뒤 등판한 한승혁은 85구로 6.2이닝을 막아내면서 시즌 3승에 성공했다.

타선에서는 김주찬이 3안타 행진을 했고, 최형우도 솔로포 포함 3안타를 터트리면서 타율 0.541, 5홈런, 14타점으로 '일요일 강자'의 면모를 보였다. 또 7회 솔로포를 날린 안치홍에 이어 '예비역' 박준태도 9회 복귀 신고포를 날리면서 12-1의 대승을 이끌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연장 끝내기포 176 ML 亞 최다 홈런

텍사스 레인저스 외야수 추신수가 2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경기에 2번 지명타자로 출전, 3-3으로 맞선 연장 10회말 5번째 타석에서 끝내기 홈런을 터뜨린 뒤 두 손을 쳐들고 포효하고 있다. /연합뉴스

14번째 시즌만에 176홈런

텍사스, 캔자스시티에 4-3 승

텍사스 레인저스 외야수 추신수가 연장전에서 경기에 마침표를 찍는 짜릿한 끝내기 홈런을 작렬했다.

추신수는 27일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경기에 2번 지명타자로 출전, 4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안타 1개가 바로 시즌 8호 홈런포였다.

앞선 4번의 타석에서 3타수 무안타 1볼넷으로 잠잠했던 추신수는 3-3으로 맞선 연장 10회말 5번째 타석에서 일을 냈다.

캔자스시티 우완 케빈 매카시와 상대한 추신수는 볼카운트 3볼-1스트라이크에서 시속 148㎞ 투심 패스트볼을 때려 좌중간 담을 넘겼다. 2경기 연속 홈런이자 메이저리그 통산 176호 홈런이다.

경기 전까지 마쓰이 히데키(일본)와 함께 메이저리그 175개의 홈런으로 아시아 출신 선수 최다 홈런 타이를 이루고 있던 추신수는 극적으로 새 역사를 썼다.

추신수의 끝내기 홈런은 신시내티 레즈에서 뛰던 2013년 5월 8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 이후 5년 19일 만이며, 통산 3번째다.

4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간 추신수의 타율은 0.259(201타수 52안타)를 유지했다.

추신수는 1회 첫 타석에서 이언 케네디를 상대로 스트레이트 볼넷을 얻어 1루를 밟았다. 이번 시즌 최장인 13경기 연속 출루다. 2사 후에는 노마 마자라의 볼넷으로 2루까지 진루했지만, 유릭슨 프로파르가 내야 뜬공으로 아웃돼 득점은 못 올렸다.

이후 4번의 타석에서는 출루에 실패했다.

추신수는 0-3으로 끌려가던 3회 1사 1루에서 1루수 땅볼로 주자를 2루까지 보냈고, 후속 타자인 이시아 카이너 팔레파가 좌전 안타를 터트려 팀 첫 득점에 힘을 보탰다. 5회에는 삼진 아웃, 7회에는 2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끝내기 홈런으로 4-3으로 승리, 2연승을 달렸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300만 관중 돌파…KIA 35만6천

2018 KBO리그가 3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지난 26일 KIA와 넥센의 경기가 열린 마산 구장을 비롯한 잠실, 문학, 수원, 고척 5개 구장에 9만898명이 입장하면서 정규시즌 300만 관중을 돌파했다. 특히 잠실(삼성-두산)과 문학(한화-SK)에는 각각 2만5000명이 입장하면서 매진 사례를 이뤘다.

이날 경기까지 전체 일정의 35.4%인 255경기를 소화한 KBO리그는 지난 5일 어린이날 200만 관중을 이룬 뒤, 80경기만에 300만 고지도 넘었다.

이는 개막 이후 100만 관중까지 소요된 92경기보다 12경기 빠르며, 100만 관중에서 200만 관중까지 이르기까지 걸린 83경기보다도 3경기 빠른 페이스다.

올 시즌 만원 관중이 들어선 경기는 총 29경기로 한화가 가장 많은 매진을 기록했다. 한화의 매진 경기는 총 6경기로, 목요일이었던 지난 24일에는 올해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평일 매진을 이뤘다.

26일 현재 LG가 45만9138명으로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40만 관중을 돌파했다. 롯데 37만1245명, 두산 36만8944명, SK와 KIA는 각각 36만3327명, 35만6550명을 기록하면서 5개 구단이 30만 관중을 넘어섰다. 증가율로는 '팀홈런 1위' SK가 21%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삼성이 9% 상승했다. 상위권으로 도약한 한화는 관중도 5% 증가했다.

/김여울 기자 wool@

이우석이 2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끝난 세계양궁연맹(WA) 2018 현대 양궁 월드컵에서 2관왕에 올랐다. /연합뉴스

막내 이우석 양궁월드컵 2관왕

男 개인, 금·은·동 싹쓸이

양궁 대표팀 막내인 이우석(국군체육부대)이 김우진(청주시청)을 꺾고 월드컵 첫 개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우석은 단체전 금메달을 합쳐 2관왕에 올랐다.

이우석은 26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세계양궁연맹(WA) 2018 현대 양궁 월드컵 2차 대회 남자 리커브 개인전 결승에서 김우진을 세트 승점 6-2로 이겼다.

결승에서 이우석은 1세트 세 발 중 두 발을 10점에, 2세트에선 세 발 모두를 10점에 명중시키며 첫 두 세트를 두 따냈다.

김우진도 3세트에 모두 10점을 쏘며 따라왔지만, 이우석은 4세트에 다시 세 발을 모두 10점 과녁에 꽂아 10점 두 발, 9점 한 발을 쏜 김우진을 제압했다.

준결승에서 맏형 오진혁(현대제철)을 꺾은 이우석은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인 김우진마저 눌러 막내의 패기를 과시했다.

오진혁이 동메달을 차지하면서 이번 대회 남자 리커브 개인전 금·은·동메달을 모두 우리 선수들이 싹쓸이했다.

이우석은 김우진, 임동현(청주시청)과 남자 단체전 금메달도 합작했다.

결승전에서 일본을 만난 우리 대표팀은 세트 승점 4-2로 앞선 4세트에서 55-56으로 뒤져 숏오프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임동현의 8점 화살이 9점으로 정정돼 56-56 동점으로 일본과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고, 승점 5에 먼저 도달해 승부를 마칠 수 있었다.

강채영(경희대), 장혜진(LH), 이은경(순천시청)이 나선 여자 대표팀도 독일을 세트 승점 5-1로 누르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강풍 탓에 장혜진이 3세트 첫 화살을 6점에 맞혀 흔들리기도 했지만 대표팀은 승리를 챙겼다.

장혜진은 여자 개인전 결승에선 크세니야 페로바(러시아)에게 슛오프 접전 끝에 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우진·장혜진이 나선 혼성전 결승에서도 한국은 일본에 1-5로 패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컴파운드 종목을 포함해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수확하며 1차 대회에 이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